

#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

## Family Factors Influencing on Adolescents' Self-Efficacy

목포대학교 생활과학부

부 교수 이 정 연\*

경희대학교 아동주거학과

시간강사 이 창 숙

Division of Human Ecology, Mokpo National Univ.

Associate Prof. : Lee, Jung-Yeon

Dept. of Child & Housing, Kyung Hee Univ.

Lecturer : Lee, Chang-Sook

### 〈Abstract〉

This research was proposed to investigate the relative influences of family variables affecting adolescents' self-efficacy. For accomplishing the aim of this study, the data has been collected from 392 junior middle school students. Statistical methods for data analysis were mean, frequency, t-test,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ing:

1. The average of self-efficacy was 3.07 and there was not found an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boys and girls in 4 sub-dimensional areas of self-efficacy.

2. Parental support, socioeconomic levels, and family functioning variables were significantly proved to be influencing on adolescents' self-efficacy. Among the variables, parental support was the most powerful variable on self-efficacy.

▲ 주요어(Key words): 자기효능감(self-efficacy), 부모의 지지(parental support), 가족기능(family functioning)

## 1. 서 론

### 1. 문제의 제기

청소년기는 사춘기부터 성인기 이전까지의 기간으로, 청소년이란 이 시기에 있는 자로서 지적, 정서적, 신체적인 제반 특성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성숙한 상태로 변화해 가는 과도기에 있는 자, 즉,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한상철, 1998).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제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부터 시작되며 생식체계가 완전히 성숙하는 단계이다(장휘숙, 1999). 심리사회적으로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감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시기이며, 따라

서 정체감의 혼란을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자아개념 역시 이 단계에 오면 보다 세분화되고, 이 세분화된 영역들을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통합하는 것이 이 시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이기도 하다.

Bandura(1977)는 인간행동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서 자기효능감을 제시하였다. 그는 자기효능감이 행동 변화를 중재하는 공통적 인지기제이며, 개인이 갖고 있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을 어느 정도 행할 수 있는가 하는 판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이동영, 1997). 그러므로, 자기효능감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뜻한다. 자기효능감은 행동과 환경을 효율적으로 선택하는 데 영향을 준다. 자신이 그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여길 때는 그 상황을 회피하나, 자신이 그

\* 주저자 : 이정연 (E-mail : ljj5784@yahoo.co.kr)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여길 때는 자신을 갖고 대처행동을 수행한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은 행동에 투여되는 노력의 양과 장애나 혐오경험을 무릅쓰고 행동이 지속되는 정도를 결정한다. 자기효능감이 강할수록 노력의 양과 지속성은 증가한다.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노력을 줄이거나 완전히 포기하지만, 강한 효능감을 지닌 사람들은 더 많은 노력을 투여한다(배정숙, 1998).

자녀는 연령이 어릴 수록 자기 능력을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고, 연령이 증가하면서 자신에 대해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노호은·박경자, 2001). 그런데, 자녀는 부모를 통해 가정 내에서 가장 먼저 자기효능감을 경험·형성·발전시키게 되고(Bandura, 1986), 가정에서 형성된 자기효능감은 자녀가 성장한 후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갖는 자신감과 자기 조절감에 영향을 미친다(문혁준, 1999). 그러므로 가정의 어떠한 환경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지를 규명하는 것은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청소년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개인의 심리적 변인만을 채택하여 연구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청소년이 속해있는 가정환경의 질적·관계적 요소를 고려한 연구는 많지 않다. 청소년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성장하고 지속적인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족, 특히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배제한다면 청소년기 자녀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미흡하다고 본다. 선행연구들이 청소년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부모의 지원이 중요한 요인으로 보여진다고 결론지으면서도 가족변인을 심도있게 다룬 논문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자기효능감 연구가 주로 교육학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져왔고, 가족변인이 주된 변인으로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이제 가족학 분야에서도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또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때라고 여겨진다.

자기효능감에 관한 최근 5년간의 연구를 살펴보면, 교육학 분야에서 대부분 학습동기(유효현, 2000), 진로결정(양은주·한종철, 1999; 조아미, 2000; 이은진 외, 2000; 이기학·이학주, 2000), 학업성취(권혁호, 1998; 박영옥, 1999; 배정숙, 1998; 신용배, 1994; 정순애, 1998; 김영상·정미영, 1999; 문병상, 2000), 문제해결(정현숙, 1999), 학교적응(김병찬, 1995; 임동란, 1998; 정순애, 1998; 유효현, 2000) 등 지적 과제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고, 간호학 분야에서는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건강증진 및 가족의 지지, 또는 심리적 적응과 관련된 연구, 그리고 체육학 분야에서는 운동수행과 관련한 신체적 자기효능감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에 비해, 가족학 분야에서는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가 많고(문혁준, 1999; 윤병두, 1995; 이동영, 1997), 부모의 기대(윤운성, 1999),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신향숙·장윤옥, 2001)

과 관련된 연구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미비한 편이며, 최근에 와서는 관련변인으로서 사회적 지지(박헌일, 2000; 송남호·김성미, 2000; 전길양·김정옥, 2000; 문성미, 2000), 또는 가족기능(장혜숙 외, 2000; 전귀연, 2001) 등이 밝혀지고 있으나 그 설명력이 높지 않은 편이다. 이 중, 가족기능과 자기효능감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의 두 가지 차원으로 측정하였는데, 이와같이 가족기능을 측정하는 것이 한국문화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척도상의 문제가 줄곧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문화권에 맞게 개발되어 타당성을 검증받은 최희진(1998)의 가족기능 척도를 채택하여 가족기능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련성을 재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며, 가족의 객관적인 인구사회적 변인외에 주관적인 가족과정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그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는 데 있다.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을 탐색하여, 이를 토대로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의의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자기효능감은 어느 정도인가?

둘째,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가족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2. 용어의 정의

1) 자기효능감 : 자신이 원하고 계획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거의 확실히 이룰 수 있다는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감을 의미한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0).

2) 가족기능: 가족이 수행하는 역할, 행위로서의 가족행동을 의미한다. 즉, 그 행동의 결과가 사회의 유지·존속이나 가족성원의 육구충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된 개념이다(유영주, 1989).

## II. 이론적 배경

### 1. 자기효능감의 개념

사람들 중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뛰어난 수행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 가 하면, 반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못 한 수행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는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지능이나 적성같은 인지적 능력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특징을 이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 중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지표로 삼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는 데, 이러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자기효능감이라고 한다(박현일·김기원, 2001). 자기효능감은 Bandura(1977)의 사회인지이론에서 최초로 언급되었으며, 그에 의하면, 인간의 행동은 환경적 요인과 인지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며, 환경적 정보는 직접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인지적 매개과정에 의하여 처리되고 변형되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그리고 여러 인지적 과정을 대표한 중심개념이 자기효능감이라는 것이다.

주관적으로 인지한 자기효능감이 지적 수행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다. Bouffard-Bouchard(1990)는 학생들의 실질적 수행수준과 무관한 허위의 또래수행 수준과 비교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높거나 낮은 효능감을 주입하였다. 그 결과 효능감이 높아진 학생들은 인지능력은 같지만 그러한 능력이 부족하다고 믿게 된 학생들보다 높은 포부수준을 설정했고, 해답을 찾을 때 더욱 전략적 융통성을 보였으며, 높은 지적 수행을 달성하였고, 자신의 수행수준을 더 정확히 평가했다(박영신·김의철 역, 2001). 이와 같이 효능감은 동기를 부여하고 전략적 사고를 제공함으로써 지적인 성취에 기여한다.

자기효능감은 심리적 적응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에도 잘 적응한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낙태수술에도 잘 적응했고(Mueller & Major, 1989), 고통을 참는 인내력이 많고(Litt, 1988),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andura 등, 1988), 어려운 과제도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eltz, 1982). 또한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은 공포, 비만, 흡연, 심장질환 등의 다양한 장애로부터의 회복과 치료에 성공적이라고 보고되며(Holahan, et.al., 1996), 이와 같이 자기효능감이 사람들로 하여금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하게 만드는 원인은 자기효능감이 고통전달을 막는 내생적 opioids 물질의 생산을 활성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Bandura 등, 1988; 이훈구, 1997, 재인용).

따라서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활동을 선택하고, 노력을 투입하고, 끈기있는 인내심으로 높은 성취를 이룬다. 이에 반해,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어떤 과제를 실제보다 더 어렵다고 믿거나, 문제해결에 있어 폭넓은 시각을 갖지 못하기도 하고, 의기소침해하거나,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는다(윤운성, 1998). 배우자 사별노인의 심리적 적응을 다룬 전길양·김정옥(2000)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우울과 가장 관련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이 24%에 달하였다. 그 외에 건강상태, 사회적지지, 교육수준 등이 높을 수록 우울이 감소하였고, 연령이 높을 수록 우울이 증가하여, 사별노인의 심리적 적응을 위해서는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자기효능감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측정척도에 관한 것이다. 여러 연구에서 자기효능감과 자아개념은 서로 혼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또 일부에서는 자기존중감을 일반화된 자기 효능감으로 표현하고 있어(Harter, 1990), 학자들간에 의

견이 일치되지 않는다.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기준에 의하여 자신이 평가하는 개념이므로 객관적인 평가와 상관없이 형성될 수 있는 정의적 특성으로(유효현, 2000), 특정과제를 잘 할 수있다고 확신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점에서 인지적이면서도 정의적인 특성을 지닌 개념이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은 과제중심적, 상황중심적이고, 개인이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Bandura, 1986,1989; Pintrich & Schunk, 1995; 윤운성, 1998, 재인용), 보다 목표지향적인 개념이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자기효능감의 개념은 연구주제에 따라 측정영역에 있어서 다소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즉,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들은 특정 분야의 자기효능감을, 그리고 심리적, 사회적 유능감에 관한 연구들은 일반적인 영역에서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2000)의 연구를 참고하여,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Harter(1982)의 척도를 사용하여 자기효능감의 일반적인 분야와 특정 분야를 두루 측정하고자 한다. 이 척도에서는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은 자아존중감으로 측정하고, 특정분야의 자기효능감은 친구사귀는 능력, 행동적절성, 인지적 학습능력 등 4개 하위영역의 점수를 합산하였다.

## 2. 가족변인과 자기효능감에 관한 선행연구

자기효능감과 관련있는 변인으로는 주로 학업성취와 관련하여 주로 귀인, 내외통제성, 동기화, 학습전략, 학습자 특성, 교사의 특성 등이 언급되어 왔으나 본 연구는 가족환경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어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사별노인을 대상으로 한 전길양·김정옥의 연구(2000)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높고, 연령이 적을수록, 건강할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수준이 상인 집단이 중 또는 하인 집단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환경 중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Hart, Dewolf, Wozniak & Burts, 1992). 청소년이 지각한 자기효능감을 연구한 노호은·박경자(2001)은 부모의 양육태도 차원 중 자율-통제차원과 성취-비성취 차원이 의미있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애정-적대 차원과 합리-비합리 차원에서는 별다른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을 연구한 문혁준(1999)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간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는데, 어머니의 양육태도 뿐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인 수 록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모두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상관을 보이나 그 관련성 정도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들에 비해서는 약한 경향을 보여, 자녀가 성장함에 따

라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다소 약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다른 변인의 영향력을 규명할 필요성을 시사해준다.

Olson과 동료들(1985)이 개발한 FACES III 척도를 활용하여 가족기능을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으로 측정 한 전귀연(2001)의 연구에서는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을수록 여자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설명력은 10.6%로 낮은 편이었다

신향숙·장윤옥(2001)의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간에 친근하고 수용적이며 책임감있는 합리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취하는 경우 청소년기 자녀의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하였으며, 도시와 농촌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윤운성(1999)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학력획득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자녀의 학문적 자기효능감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설명력이 1%-2%정도로 매우 낮았다.

Hoffman 등(1988)은 부모와 동료의 지지가 사춘기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박현일·김기원(2001)의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중 친구/애인의 정서적 지지가 일반적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변인으로 밝혀졌고, 부모의 지지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 청소년기를 벗어난 대학생의 경우엔 가족의 지지가 미치는 영향이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친구/애인의 지지가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나 설명력은 10% 내외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가족변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지지, 의사소통 유형, 가족기능 등이 관련변인으로 추출되었다. 이 중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변인은 자기효능감과 인과관계라기 보다는 상호관계로 인식하고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경향이 대부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변인을 제외하였다. 그리고, 의사소통 분야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가족기능 척도의 하위영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변인으로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력, 직업, 가족의 경제적 수준 등 가족의 인구조사적 변인과 부모의 지지와 가족기능 등의 가족과정변인들을 포함하여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을 규명하고, 그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광주광역시 두 곳의 중학교 3학년 남학생과 여학생을 대상으로 편의적 표집을 하였다. 2001년 7월 11일 예비조사를 거쳐 질문지 문항을 수정 보완한 뒤, 2001년 7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질문지를 배포, 회수하였다. 질문지는 420부를

배포하여 총 417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 부실기재 25부를 제외한 392부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 2. 측정도구

### 1) 자기효능감 척도

Harter(1982)의 자기효능감 척도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자아존중감, 친구 사귀는 능력, 행동적절성, 인지적 학습능력 등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원래 이 척도는 서로 상반되는 한 쌍의 진술 각각에 대해 '나와 비슷한 편이다', '정말 나와 똑같다' 중 선택하여 답하게 하는 4점 척도로 구성된 것이지만, 청소년보호위원회(2000)에서 하나의 진술에 대해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변형한 20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총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Cronbach's  $\alpha$ =.79이었다.

### 2) 가족기능척도

가족기능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Tavitian 등(1987)이 개발한 5개 하위요인 구조를 가진 가족기능도 척도(FFS: Family Functioning Scale) 40개 문항의 문항양호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문항변별도, 요인분석, 회귀분석, 그리고 신뢰도 검증 등 4가지 과정을 거쳐 4개 하위요인으로 재구성한 26개 문항의 최희진(1998)의 척도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그대로 채택하였다. 최희진(1998)은 FFS의 7점 평정 척도를 5점 척도로 전환하여 중학생들이 용이하게 평가하도록 하였다. 각 영역별 총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이 정상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영역별 신뢰도가 "긍정적인 가족정서" 요인이 .82, "가족의사소통" 요인이 .80, "가족행사참여" 요인이 .76, "가족일나누기" 요인이 .69였으며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5가 나왔다.

### 3) 부모의 지지 척도

부모의 지지 척도는 청소년보호위원회(2000)에서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4개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총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긍정적인 지지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Cronbach's  $\alpha$ =.82 이었다.

##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족변인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검증, 단순상관관계, 그리고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분석은 SPSSWIN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이 56.4%, 여학생이 43.6%였다. 부의 교육수준은 42.7%가 고등학교 졸업, 46.6%가 대학교 이상의 졸업으로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은 반면, 모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53.5%로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자가 지각하는 경제수준은 중류층이 62.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상류층이 23.3%로 많았다.

모의 직업유무는 '있다'가 58.2%, '없다'가 41.8%이었고, 부의 직업으로는 무직이 3.8%, 피고용기능직이 23.4%, 사무직/기술직이 32.9%, 그리고 전문직/관리직이 18.1%로 사무직/기술직에 근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2. <연구문제1의 분석>

<연구문제1>은 “청소년이 지각한 자기효능감은 어느 정도인가”이다. <표2>에 의하면, 본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3.07이고, 남학생이 3.09, 여학생이 3.06으로서 거의 비슷한 점수분포를 보였다. 선행연구에서 성별은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들(이동영, 1997; 문혁준, 1999)이 있는 반면, 다른 연구(노호은·박경자, 2001)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기효능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본 연구에서는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
성별	남자	220	56.4
	여자	170	43.6
	계	390	100
부의 교육수준	초등학교	9	2.3
	중학교	33	8.5
	고등학교	157	42.7
	전문대학	7	1.8
	대학교	134	34.7
	대학원	46	11.9
계	386	100	
모의 교육수준	초등학교	8	2.1
	중학교	55	14.3
	고등학교	206	53.5
	전문대학	9	2.3
	대학교	91	23.6
	대학원	16	4.2
계	385	100	
경제수준	최하층	9	2.3
	하층	36	9.2
	중류층	245	62.8
	중상층	91	23.3
	상류층	9	2.3
	계	390	100
모의 직업유무	있다	228	58.2
	없다	164	41.8
	계	392	100
부의 직업	무직	14	3.8
	단순노무직	11	2.9
	피고용기능직	87	23.4
	사무직·기술직	122	32.9
	전문직·관리직	67	18.1
	자영직 및 기타	70	18.9
	계	371	100

t검증결과, 어느 영역에서도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는 자아존중감 영역이 가장 높고, 행동적절성 영역이 다음으로 높고, 인지적 학습능력 영역의 자기효능감이 가장 낮았으며, 남학생의 경우엔 자아존중감 영역이 그리고 여학생의 경우엔 행동적절성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로 미루어본다면 청소년들은 자신의 가치, 사회적인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자기조절능력 등을 높게 인정하면서도 학업성취와 관련한 학습능력은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김의철·박영신, 2001; 박광배·신민섭, 1991; 이경희, 1995)에서도 한국 학생들에게 학업성취는 중요한 과제이고, 이로 인해 학업스트레스가 가장 큰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를 감안할 때, 본 연구에서 인지적 학습능력 영역에서의 자기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점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2> 성별 자기효능감의 차이검증 (N=389)

하위영역	남학생 M(SD)	여학생 M(SD)	전체 M(SD)	t값 및 유의도
자아존중감	3.19(1.01)	3.13( .98)	3.16(1.00)	t= .55 (n.s.)
친구사귀는 능력	3.13( .61)	3.13( .47)	3.13( .55)	t= .00 (n.s.)
행동적절성	3.14( .59)	3.15( .57)	3.14( .58)	t=-.14 (n.s.)
인지적 학습능력	2.81( .83)	2.74( .85)	2.78( .83)	t= .82 (n.s.)
전 체	3.09( .52)	3.06( .51)	3.07( .52)	t= .55 (n.s.)

3. <연구문제 2>의 검증

<연구문제2>는 “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가족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우선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인들과 자기효능감 간의 단순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았다. 즉, 자기효능감은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의 경제수준, 부모의 지지, 그리고 가족기능의 3가지 하위영역과 모두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모의 직업유무와는 부적의 상관을 보였다. 한편, 부의 직업I과 부의 직업II는 상관관계가 r = .93으로 강하게 나타나 회귀모델의 가정을 위반하는 다중공선성의 우려가 있어 회귀분석에서는 부의 직업I을 제외한 나머지 독립변인들이 투입되었다.

다음으로, 단계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표4>참조), 우선 회귀가정을 충족하는지 살펴보면, F=24.56 (P<.001)이었고, Durbin-Watson계수도 1.96으로 2에 근접한 값을 지녀 본 연구에서 채택한 회귀식이 회귀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 투입한 독립변인 중 부모의 지지, 긍정적 가족정서, 경제적 수준, 가족의사소통, 그리고 가족일 나누기 등의 변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지지가 많을 수록, 가족간에 긍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할 수록,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 수록, 가족의사소통이 많을 수록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일 나누기가 많

&lt;표3&gt; 관련변인들간의 상관관계

자기효능감	1.00												
성별	.02	1.00											
부의교육수준	.11 ( <sup>*</sup> )	-.04 ( <sup>*</sup> )	1.00										
모의교육수준	.16 ( <sup>**</sup> )	.02	.57 ( <sup>***</sup> )	1.00									
모의직업유무	-.12 ( <sup>*</sup> )	-.07	.05	.07	1.00								
부의직업 I	-.04	.08	-.36 ( <sup>***</sup> )	-.28 ( <sup>***</sup> )	.02	1.00							
부의직업 II	.04	-.04	.40 ( <sup>***</sup> )	.33 ( <sup>***</sup> )	-.03	-.94 ( <sup>***</sup> )	1.00						
경제수준	.33 ( <sup>***</sup> )	.04	.39 ( <sup>***</sup> )	.32 ( <sup>***</sup> )	-.11 ( <sup>*</sup> )	-.20 ( <sup>***</sup> )	.24 ( <sup>***</sup> )	1.00					
부모의지지	.44 ( <sup>***</sup> )	.12 ( <sup>*</sup> )	.13	.03	-.03	-.01	.01	.30 ( <sup>***</sup> )	1.00				
긍정적가족정서	.44 ( <sup>***</sup> )	.23 ( <sup>***</sup> )	.08	.10 ( <sup>*</sup> )	-.11 ( <sup>*</sup> )	-.08	.10	.25 ( <sup>***</sup> )	.65 ( <sup>***</sup> )	1.00			
가족의사소통	.34 ( <sup>***</sup> )	.03	.00	.03	-.05	.02	-.04	.14 ( <sup>*</sup> )	.39 ( <sup>***</sup> )	.49 ( <sup>***</sup> )	1.00		
가족행사참여	.30 ( <sup>***</sup> )	.02	.09	.08	-.15 ( <sup>**</sup> )	-.10 ( <sup>*</sup> )	.09	.31 ( <sup>***</sup> )	.40 ( <sup>***</sup> )	.56 ( <sup>***</sup> )	.41 ( <sup>***</sup> )	1.00	
가족일나누기	.08	.04	-.00	-.10 ( <sup>*</sup> )	.06	.03	-.03	.11 ( <sup>*</sup> )	.37 ( <sup>***</sup> )	.33 ( <sup>***</sup> )	.33 ( <sup>***</sup> )	.38 ( <sup>***</sup> )	1.00
	자기효능 감	성별	부의교육 수준	모의교육 수준	모의직업 유무	부의직업 I	부의직업 II	경제수준	부모의지 지	긍정적가 족정서	가족의사 소통	가족행사 참여	가족일나 누기

\* p&lt;.05, \*\* p&lt;.01, \*\*\* p&lt;.001

성별: 남학생=0, 여학생=1로 가변인화 하였음.

모의 직업: 없다=0, 있다=1로 가변인화 하였음.

부의 직업: 기타=0, 노무직·자영직·기능직=1로 가변인화 하였음.

부의 직업II: 기타=0, 사무직·전문직=1로 가변인화 하였음.

올수록 자기효능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높은 변인은 부모의 지지로 나타났으며, 이상의 변인의 설명력은 30.5%이었다. 반면, 청소년의 성별이나, 부모의 학력 수준, 직업 유무 및 종류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lt;표 4&gt; 단계별 회귀분석

독립변수	b	beta	R <sup>2</sup>	F값 및 유의도
부모의 지지	1.30	.23 <sup>***</sup>		24.56 <sup>***</sup>
긍정적가족정서	.16	.21 <sup>**</sup>	.305	
경제적수준	.15	.20 <sup>***</sup>		
가족의사소통	9.9E-02	.17 <sup>**</sup>		
가족일나누기	-9.5E-02	-.16 <sup>**</sup>		
상수		1.52		
D-W계수		1.96		

\* p&lt;.05, \*\* p&lt;.01, \*\*\* p&lt;.001

이러한 결과를 분석해보면, 가족원들간에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고 대화를 많이 나누는 등, 긍정적인 가족기능을 많이 경험할수록 청소년들이 자신의 능력을 높이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결과는 가족응집성과 자기효능감을 연구한 전귀연(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가족일나누기 영역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감소한다는 점에서는 가족적응성과 자기효능감을 연구한 전귀연(2001)의 연구와는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경향은 자기효능감 척도의 하위영역이 각기 다르고 연구대상도 다른 데서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행동에 결정적인 변인으로 작용하는 요소 중 하나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감을 의미하는 자기효능감으로 보고,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가족변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통계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자기효능감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거의 비슷한 점수분포를 보였다. 하위영역별로는 자아존중감 영역이 가장 높고, 인지적 학습능력 영역이 가장 낮았다.

둘째,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지지, 가족기능, 그리고 가족의 경제적 수준 등으로 밝혀졌고, 부모의 지지가 많을수록, 가족간에 긍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할수록,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의사소통이 많을 수록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일 나누기가 많을수록, 자기효능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높은 변인은 부모의 지지로 나타났으며, 이상의 변인의 설명력은 30.5%이었다.

이상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첫째,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관한 관련변수로서 가족변인이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진 점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가족의 인구사회적 변인과 과정적 변인은 모두 중요한 변인으로 판명되었는데, 우선, 인구사회적 변인으로는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지각한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상황은 물질적 자원의 부족만을 의미하는 개념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및 심리적, 문화적 박탈을 동시에 포함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백련화, 1998), 자기효능감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에 비해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유무는 별다른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자기효능감 증진 방안이 우선적으로 모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가족과정적 변인으로서, 부모의 지지와 가족기능의 4개 영역 중 3개 영역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자신이 주관적으로 지각한 것이므로, 자신에 대한 능력을 확신하고 만족하는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한 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의 지지와 가족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Andrews와 Withey(1973)는 전반적인 삶의 질에 관한 전국 조사들을 재분석한 결과, '삶의 질'을 설명한 30가지 영역 중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정', '금전', '재미', 그리고 '주택'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인간의 삶의 만족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인이 외적 요인이 아니라 내적인 심리적인 요인임을 입증하는 것이며, 본 연구결과,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에서 가족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게 되면 자녀의 삶의 질도 아울러 향상됨을 시사한다.

셋째, 기존 연구들이 가족의 과정적 변인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나 기대 등에 국한하여 조사한 결과, 설명력이 낮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족기능 변인을 투입함으로써, 설명력이 증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녀의 자기효능감을 진단하는 지표로서 가족기능이 적합한 변수로 확인되었으며,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가족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선행조건임이 입증되었다.

선행연구들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의 관련변인으로서 주로 개인적 변인에 관심을 두어왔으나, 본 연구결과 청소년을 둘러싼 일차적 환경인 가족의 영향력이 실제로 검증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연구가 진행되는 데 필요한 제안점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이번 연구에서는 가족변인을 탐색하고 그 영향력을 규명하는 데 국한하였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개인적, 사회적 변인을

모두 총괄하여 자기효능감에 관한 전체적인 통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을 검증하였으나, 기존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학업의 실제적인 수행 외에도 심리적 안녕, 청소년비행 등을 연결하는 중재변인으로서의 관련성이 많이 시사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특히, 부모의 지원 중 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지원을 보다 세분화하여 지원하는 지침서와 가족기능 활성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접수 일 : 2002년 9월 4일

□ 심사완료일 : 2002년 10월 30일

【참 고 문 헌】

권혁호(1998). 자기효능감과 귀인양식, 정신건강, 학업성취도와 의 관계.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병찬(1995). 고등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상·정미영(1999). 수업목표 설정시 학습자의 참여가 학업성취 및 수학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13(3), 1-19.

김의철·박영신(2001). IMF시대 한국 학생과 부모의 스트레스와 대처양식 및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77-105.

노호은·박경자(200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자녀양육 태도와 자기효능감간의 관계. 연세교육과학, 49, 55-71.

문병상(2000).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자기조절학습전략 훈련이 수학문장제 수행에 미치는 효과. 초등교육연구, 13(2), 101-116.

문성미(2000). 간질환자의 사회심리적 적응과 자기효능·사회적 지지와의 관계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0(3), 694-708.

문혁준(1999). 아동기의 부모자녀 양육태도와 대학생이 지각하는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7(9), 141-152.

박광배·신민섭(1991). 고등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298-314.

박영신·김의철 역(2001).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 서울:교육과학사.

박영옥(1999). 자기효능감 및 학습성의특성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헌일(2000).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간의 관련성에 대한 문헌연구. 계명문화대학 계명연구논총, 18(1), 5-23.

박헌일·김기원(2001).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의 자기효능

- 갑 간의 관계. *계명문화대학 계명연구논총*, 19, 7-23.
- 배정숙(1998). 자아개념 및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적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련화(1998). 가족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남호·김선미(2000). 영세노인들의 자기효능·사회적 지지·우울간의 관계.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1(1), 158-171.
- 신용배(1994). 자기효능감이 아동의 학습의욕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향숙·장윤옥(200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이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189-202.
- 양은주·한종철(1999). 여대생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 연구: 태도와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상담과심리치료)*, 11(1), 79-94.
- 유효현(2000). 자기효능감과 학습동기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병두(1995).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욕구 충족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1995).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동영(1997).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동란(1998).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간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영주(1989). 가족의 대내적 기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영주 외 2인(2001). *가족관계학*. 서울 : 교문사.
- 유효현(2000). 자기효능감과 학습동기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분석.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운성(1999). 부모의 기대가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교육심리연구*, 13(4), 247-258.
- 윤운성(1998). 자기효능감의 관련변인 탐색. *공주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연구*, 14, 213-238.
- 이기학·이학주(2000). 대학생의 진로 태도 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 12(1), 127-136.
- 이은진 외(2000). 우수학생들의 진로효능감 증진을 위한 가치-기초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12(2), 99-112.
- 이훈구(1997). *행복의 심리학-주관적 안녕*. 서울 : 법문사.
- 장혜숙 외(2000). 암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의 건강증진행위와 자기효능감 및 역할 스트레스. *대한간호학회지*, 30(2), 402-412.
- 장휘숙(1999). *청년심리학*. 서울 : 학지사.
- 전귀연(2001). 여자청소년이 가지는 광고태도의 선행변수와 결과변수에 관한 연구. *광고연구*, 51, 167-190.
- 전길양·김정옥(2000). 배우자 사별노인의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및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1), 155-170.
- 정순애(1998).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 및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분석.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숙(1999).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및 구인성향이 수학문제해결 양식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아미(2000). 청소년의 진로의사결정과 진로성숙의 결정요인으로서는 진로의사결정 효능감. *교육학연구*, 38(3), 1-20.
- 최희진(1998). 가족기능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청소년보호위원회(2000). 인터넷 환경이 청소년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보호위원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0). *가정환경과 청소년비행*.
- 한상철(1998). *청소년학개론*.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Andrews, F.M., & Withey, S.(1973). Developing measures of perceived life quality : Results from several national survey. *Social Indicators Research*, 1, 1-26.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NS: Prentice-Hall.
- Bandura, A., Cioffi, D., Taylor,C.B., & Brouillard, M.E. (1988). Perceived self-efficacy in coping with cognitive stressors and opioid ac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479-488.
- Bouffard-Bouchard, T.(1990).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performance in a cognitive task.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0, 353-363.
- Feltz, D.L.(1982). Path analysis of the causal elements in Bandura's theory of self-efficacy and an anxiety-based model of avoidanc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764-781.
- Harter, S.(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Hoffman, M.A., Ushpoz,V., & Levy-Shiff, R.(1988).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7, 307-316.
- Hollahan, G.K., et.al.,(1996). Self-efficacy: physical decline, and change in functioning in community-living elders: A prospective study. *The Gerontologist*, 51(5), 183-190.
- Mueller, P., & Major, B.(1989). Self-blame, self-efficacy, and adjustment to abor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59-1068.
- Litt, M.D.(1988). Self-efficacy and perceived control: Cognitive mediators of pain toler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49-160.
- Olson, D.H., Portner, J., & Lavee, Y.(1985). *FACES III*. St.Paul: Family Social Science, Univ. of Minnesota.
- Pintrich, P.R., & Schunk, D.H.(1995). *Motivation in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Tavitian, M. L., Lubiner, J., Green, L., Grebstein, L. C., & Veicer, W.F.(1987). Dimensions of Family Functioning.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2(2), 191-204.